

한국문화교류 소식

57호 2025년 10월 31일 발행·발행인 이효정

(사)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오피스텔 1604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kr



취임사

함께 만들어가는 '보다 나은 세상', 문화 교류로 꽃피우다

ICKC는 지난 3월 28일(금),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효정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추대하였고, 지난 6월 30일에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정식으로
승인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이를 알리고 기념하고자 이효정 신임 이사장님의 취임 인사
글을 게재합니다. 감사합니다. _ ICKC 사무국



이 효 정

ICKC 이사장,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존경하는 (사)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ICKC) 회
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듯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올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14년이란 장고의 세월동안 ICKC를 통해 선한
영향력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나고 싶었던 여
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지켜 보아 왔기에 앞으로
도 그 선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지속되는 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평소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적극 지지하고 세계 평화를 지향해 왔습니다. 다국적 다문화, 특히 세계 전통문화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름에서 공감으로” 교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ICKC 창립정신과 미래 비전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어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협회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민족의 전통문화와 세계각국의 전통문화의 다양성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문화 교류는 서로의 삶과 역사를 이해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구현 가능한 인간존중과 세계평화는 ICKC가 추구하는 이념이기도 합니다.

문화 교류의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한류를 포함한 다국적 전통문화 교류를 통해 인류의 존엄성을 전 세계 시민과 공유하고, 사회 공헌 활동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회 봉사 활동과 모범적인 사회 공헌의 길을 걷는 ICKC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속적인 지원 방향을 마련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협회의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하여, 문화의 힘! 네트워크의 힘! 문화네트워크의 힘! 이 원대한 ICKC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CKC가 바라는 평화와 존엄성이 꽃피는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30일

사단법인 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ICKC)

이 효 정 올림

법인
명칭
변경
및
사무실
이전
알림

ICKC는 지난 8월 27일(수)자로 법인명을 기존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에서 ‘(사)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로 변경하고 고유번호증 정정 및 신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3월 28일(목) 총회 의결에 따른 이번 명칭 변경은 전 세계 재외동포 커뮤니티와 더 긴밀히 소통하고 재외동포 인재 발굴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식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새로 취임한 이효정 이사장을 비롯해 신규 이사진은 이번 명칭 변경의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ICKC 주 사무실 및 소재지도 기존 송파구에서 마포구로 이전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변경된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오피스텔 1604호 (마포동)

(사)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특집 : ICKC 해외역사문화탐방기

거친 땅, 중앙아시아에서 따뜻한 인심을 품고 오다

— 우즈베키스탄 방문기

2025년 9월 23일(화)부터 28일(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정부 초청 및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협조로 박의근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ICKC 사절단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페르가나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ICKC 사절단은 이번 방문에서 ‘보미피아낸스센터’ 개소식 참석, 故 비탈리 펜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묘소 및 생가 방문 등 여러 뜻 깊은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탐방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의의를 되새기고자 본 탐방에 함께 참여한 ICKC 심의표 이사님(전 KBS부산총국장)의 탐방기를 수록합니다.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심의표 이사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_ ICKC 사무국



심 의 표

ICKC 이사, 前 KBS부산총국장

첫 경험 앞에서는 누구나 마음이 설레게 된다. ‘스탄(-stan : 땅, land)’의 나라 중앙아시아 여행은 나로서는 처녀지 탐방처럼 마음 설레는 첫 나들이였다. 동

서양을 잇는 고대 무역로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여행은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살짝 들뜬 기분에 휩싸이게 했다.

젊었을 때부터의 오랜 버릇이었지만, 이번 1주 일간의 우즈벡 여행을 앞두고도 인터넷과 AI 프로그램 이것저것을 뒤져 여행지 사전 정보를 수북하게 뽑았다. 우즈벡에 관한 역사, 지리, 인종, 언어, 정치와 경제 현황 그리고 방문지인 타슈켄트(Tashkent)와 페르가나(Fergana), 코칸트(Kokant), 마르길란(Margilan) 등에 관한 자료를 복사하디 보니 분량이 너무 많았다.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를 수차례 다녀오신 다른 일행들의 놀림 대상이 될 것 같아, 대부분 자료는 한번 언뜻 훑어보고는 쓰레기통으로 보냈다. 이번 방문팀의 단장을 맡으신

박의근 ICKC(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 고문님과 일행 중 다른 한 분은 바로 며칠 전에도 키르기스스탄 태권도 국제행사에 다녀왔으니 촌뜨기 같은 나의 행동을 알면 얼마나 우습겠는가!

우리 일행은 단출한 일곱 명이었지만, 그래도 어엿한 '주한 우즈벡 대사관 요청 및 우즈벡 정부 초청에 따른 ICKC 사절단' 자격의 공식방문팀이었다. 알리셰르 아브두살로모프(Alisher ABDUSALOMOV) 주한 우즈벡 대사와 우즈벡 외무부의 우정어린 관심과 배려의 도움이 컸다. 9월 23일 오전 10시가 출발 예정 시간이었지만, 타고 갈 우즈벡 항공기 사정으로 2시간 정도 지연되는 바람에 공항 라운지에 비치된 애꽃은 코냑 병만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다.

첫날은 특별한 공식 일정이 잡힌 것이 없어 출발이 좀 늦어진다고 마음 졸일 이유도 없었다. 7시

간이 넘는 제법 긴 비행이었지만, 타슈켄트 공항이 가까워지면서 기창 밖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고봉준령, 장엄한 산줄기 풍경이 잠시나마 지루함을 덜어주었다. 산등성이가 새하얗게 빛나 보이는 건 아마도 천산산맥(天山山脈) 정상 부분의 만년설과 빙하가 햇볕에 되비친 모습이었는가 싶다.

타슈켄트 국제공항은 3천7백여만 명의 인구를 가진 우즈벡 최대의 공항치고는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 보였다. 웅장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의 이미지가 타슈켄트 공항을 실상보다 다소 왜소하게 느껴지게 만들었나 보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만나게 된 타슈켄트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는 우즈벡인, 나아가 중앙아시아인에 대한 나의 첫인상을 무척 호의적으로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 출국 과정 모두가 거의 완벽하게 자동화·디지털화된 인천공항의 무미건조함보다,



▲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함께. 왼쪽부터 고흥규 ICKC 감사(주)동우들 대표이사, 필자, 이현묵 농림식품부 관리관(사)품목조직화지원단 대표, 박의근 ICKC 고문(주)P&H 회장, 허원준 전 한화케미칼 부회장·전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 정덕균 포스코DX고문·전 대표이사 사장, 박명수 행정학박사·전 한국가이던스 전무이사.

코밀수염을 기른 타슈켄트 입국창구 직원이 여권에 찍어주는 아날로그식 스탬프에서 오히려 보다 인간적인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자랑스런 한국인, 금융센터 개관식

우리 일행의 이번 우즈벡 방문은 일반적 관광 여행과는 달랐다. 몇 가지 분명한 방문 목적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타슈켄트시 중심부인 국제비즈니스센터구역(Tashkent City) 안에 건립된 ‘보미금융센터(BoMI Finance Center)’의 개관식 참석이었다. 이 금융센터의 주인은 한국인 기업인 김덕영 씨. 서울올림픽이 열린 지난 1988년 보미엔지니어링을 창업해, 국내는 물론 중동과 미국, 동남아시아 건설현장을 두루 누비며 국제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개발 사업가이다.

지하 3층에 지상 30층의 거대한 보미금융센터 건물의 위용은 타슈켄트시의 주요한 랜드마크로서의 당당한 모습으로 주변에 들어서 있는 힐튼호

텔이나 우즈벡산업건설은행 등 다른 거대빌딩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히 보였다. 우리 고유의 달항아리의 은은한 은백색상을 건물의 주이미지로 담았다는 설명에는 유서 깊은 문화민족으로서의 뿌듯한 자긍심도 느낄 수 있었다.

먼 이국의 수도 심장부에서 펼쳐진 개관식 행사 무대에는 우아한 한복패션쇼와 부채춤, 난타 공연 등 한국 전통예술이 풍성하게 펼쳐졌다. 우즈베키스탄의 화려한 전통의상쇼와 유목민족 특유의 템포 빠른 전통무용 등이 곁들여진 것은 당연하다.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우즈베크의 정·관계 인사와 우즈벡 거주 한국 외교관, 그리고 양국 기업인들은 한바탕 두 나라 전통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문화교류 마당의 흥취를 흠뻑 맛볼 수 있었다.

한국 기업인의 손으로, 땀으로 세운 한 빌딩 개관식에 양국의 관계자들이 큰 성황을 이룬 모습을 보고, ‘굳이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한 기업인의 노력도 이렇게 훌륭한 외교적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달았다. 보미건설 측에서 마련



- ▲ ‘보미금융센터’ 개소식 축하행사 중 부채춤 공연.
- ◀ ‘보미금융센터’ 개소식에서 김덕영 보미건설 회장과 함께(왼쪽에서 세 번째). 왼쪽부터 정덕균, 필자, 김덕영, 박익근, 허원준, 고용규, 박명수 님(준칭 생략).

한 저녁 식사 자리는 인근 힐튼호텔 고층식당이어
서, 창밖으로 내려다보이는 타슈켄트 시의 화려한
야경을 통해 약속하는 우즈벡의 미래를 점칠 수
있었다.

한-우즈벡 외교의 한 거인을 기린다

한 사람이 같은 나라에서 25년간 외교관직을 수
행했다면 쉽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럴 수가? 하고
아마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일반 외교
관직이 아니고 대사직을 그렇게 오래 수행했다면
더더욱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분이 있었다.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고(故) 비탈리 펜(Vitali V. Fen) 주한 우즈베키
스탄 대사가 바로 그분이다. 1930년대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우즈벡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
고려인 후손이다. 한국 성 편(片) 씨가 러시아식으
로 붙이다 보니 Fen 씨로 바뀌었다.

1995년 주한 대리대사 직을 시작으로 2013년까
지 18년간을 주한 우즈벡 대사로 재임한 후 본국
으로 돌아갔다가 2017년에 다시 한국으로 부임,
지병으로 숨진 작년(2024년)까지 7년간 주한 우즈
벡 특명전권대사직을 맡았다. 두 재임 기간을 합
치면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다. 기네스북에
기록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AI에게 물어보
니 지금까지의 세계외교사에서는 한 나라 대사 근
무 기록으로서는 최장기간이라는 답을 내놓는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외교단 단장’ 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박의근 회장과는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첫



▲ 2024년 6월 14일 우즈벡 국영 <두노통신> 인터뷰 당시 비탈리
펜 대사 (출처 : 전 주 우즈벡대사 최영하, “[추모] 편비탈리 우즈
벡 대사...”최후까지 혼신 다한 책임감과 열정 존경합니다)

◀ 비탈리 펜 대사 묘소에서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ICKC
사절단.

인사를 나누는 후, 의형제를 맺어 37년간의 긴 인연을 이어왔다고 한다. 펜 대사 생전 두 분의 관계는 단순한 개인 교분을 넘어 사회, 경제 측면은 물론 문화, 스포츠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한-우즈벡 양국 교류의 실질적인 가교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지난해 6월, 펜 대사의 타계 이후 첫 우즈벡 방문이라, 우리 일행은 그의 고향인 페르가나(Fergana)시를 찾아 고인의 유족(큰 따님)도 위로하고, 그의 묘소도 참배하기로 자연스럽게 의견을 모았다. 비록 이미 고인이 된 한 외교관의 유족 위로와 묘소 참배라는 단순하다면 아주 단순해 보이는 방문이었지만, 조상의 뿌리나라인 한국과 본인의 모국인 우즈벡 두 나라를 보다 가까운 관계로 끌어올리는 데 평생을 바친 한 외교 거인의 묵직한 공적을 깊이 되돌아보는 값진 발걸음이 되었다.

우즈벡의 손님맞이 - 따뜻한 우정, 푸근한 인정

지금은 많이 바뀌었거나 바뀌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이슬람국이나 회교도, 회교문화는 심한 편견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아마도 천주교,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종교·문화적 배경으로 오랫동안 회교인이나 회교 문화에 대한 적대감이나 배타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서구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리라. 글로벌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온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지역 등 회교문화권에 대한 원활한 교류나 정보교환, 이해도 등이 미흡하거나 낮은 것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1주일간의 짧은 여정으로 이슬람 문화에 대한



▲ 우즈베키스탄의 '메흐몬드스트(Mehmondost, 손님은 신이 보낸 선물)'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차림상. 즐겁게 만찬을 즐기는 ICCK 사절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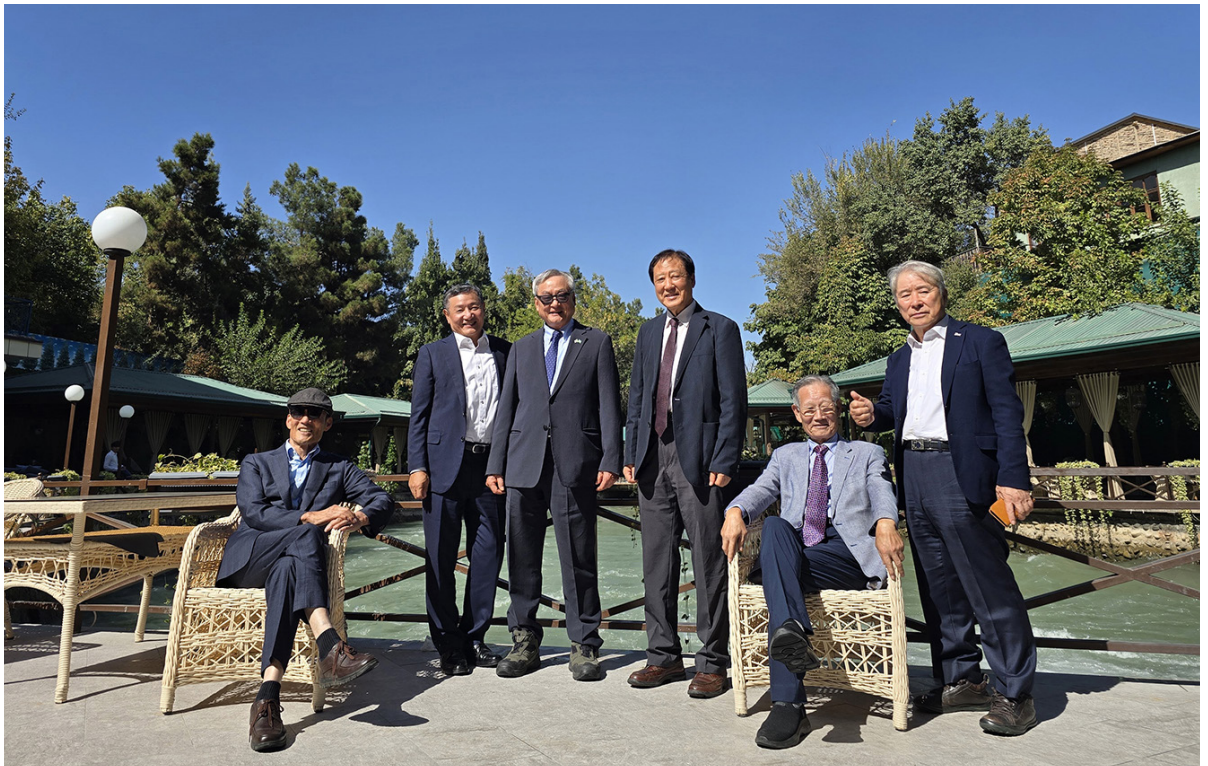
시각의 변화야 기대할 수 없겠지만,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속담처럼 이번 여행을 통해 우즈베크인들의 풍습 몇 가지를 실제로 보고, 알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은근한 호감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다.

첫째로 손님을 맞는 그들의 전통풍습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넘어 놀라기까지 했다. ‘메흐몬도스트(Mehmondost)’, 우리 말로 옮기면 ‘손님은 신이 보낸 선물’이라며 극진히 모시는 환대문화를 함축한 말이다. 손님이 찾아오면 일단 문 쪽에서 멀리 떨어진 상좌로 모시고 정성스레 구운 리뽀슈카(전통 빵)를 손으로 찢어주거나 후속음식을 나르고, 음료인 홍차나 녹차를 계속 따라주며 주인은 아예 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처음엔 우리와 너무나 다른 낯선 광경이라 무척 당황스럽고 민망하기까지 했지만 이곳의 오랜 손님맞이 관행이라는 설명에 다소 안심이 되었다.

두 번째는 너무나 풍성하고 후한 음식 인심을 빼놓을 수 없다. 손님맞이 방으로 들어선 우리 일행 모두는 식탁 위에 미리 차려져 있는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차림상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메인 요리인 양고기, 쇠고기, 말고기 등이 들어오기 전인데도 이미 식탁 위에는 온갖 종류의 견과류와 오색찬란한 과일, 채소 등이 넘쳐나듯 가득 차려져 있었다.

이번 여행 중 펜(Fen) 대사 생전, 평생을 친하게 지냈다는 친구 두 분의 가정집 초대를 받았는데 두 집의 음식상 차림이 그대로 닮은꼴이었다. 우리를 초대한 두 집 모두 페르가모(Fergamo) 지역에서는 손꼽힐만한 이른바 ‘부자댁’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상차림은 부자여서라기보다 이 지역 사람들의 오랜 관습에 따른 것이라는 귀뜸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호의를



▲ 화창한 날씨에 환하게 웃고 있는 ICKC 사절단. 왼쪽부터 이현목, 정덕균, 박익근, 필자, 허원준, 고용규 님(존칭 생략).

통해 옛 친구 펜 대사에 대한 그들의 신의(信義)와 끈끈한 정(情)을 느끼게 된 점이다. 펜 대사는 이미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됐는데도, 펜 대사의 의형제 박의근 회장님과 함께 간 우리 일행을 그렇게 진정을 담아 따뜻하게 맞아 줄 수 있을까?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정감이 있는 것일까? 우리로서는 그저 고맙고 놀라울 따름이었다.

글을 마무리하며

어떤 여행이든 뒤끝에는 마음 한 귀퉁이에 늘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다. 이번 우즈벡 여행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였다. 일정이 허용되었다면, 티무르제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사마르칸트(Samarkant)', 황톳빛 중세도시 '히바(Khiva)', 실크로드의 관문으로 2,500년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부하라(Bukhara)' 등지에도 잠시나마 발길이라도 한 번 머물고 싶었다. 생애 처음으로 밟아 본 중앙아시아의 땅을 언제 또다시 디터볼 수 있을까?

그러나 이번 일정 중 셋째 날 오후, 코칸트(Kokant) 시의 유적 '후도야르칸 오르다시(Xudoyorxon o'rdasi) 궁전' 방문은 앞서 언급한 아쉬움의 갈증을 달래주는 오아시스 역할을 해주었다. 페르가나(Fergana) 계곡에 숨어있는 이 고궁박물관은 코칸트 칸국의 마지막 왕인 후도야르 칸이 1871년에 완공한 궁전으로 124개의 방에 수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이 궁전은 '코칸트의 진주'라는 아름다운 별명으로 불린다. 궁전 정원 곳곳에 빨갛게 익은 석류가 수없이 열려있는 이국적 풍경 앞에서 우리 일행은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일정에 잡혀 있었으나, 시간에 쫓겨 들르지 못한 타슈켄트의 명소 초르스 전통시장(Chorsu Bazaar)

의 아쉬움은 역시 페르가나 계곡에 있는 마르길란(Margilan) 마을의 전통실크공장 방문으로 대신 메꿀 수 있었다. 고대 실크로드 주요 거점의 한 곳이었던 마르길란에는 지금도 전통적인 수작업으로 비단제품과 각종 수공예품을 생산하고 작은 공장들이 맥을 이어가고 있다. 전통의상 차림의 여성들이 베틀에 앉아 손과 발을 움직여 비단을 짜는 모습도 신기했지만, 공장 앞마당에서 갓 짜낸 비단을 여러 색상의 자연 염료통에 담귀 즉석에서 형형색색의 무늬를 빚어내는 염색기술자의 솜씨에 우리는 멍하니 경탄의 눈길을 줄 수밖에 없었다.

가는 날과 돌아오는 날을 빼고 나면 나흘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번 일정이었지만, 중앙아시아 지역 첫 여행 경험은 나에게 적지 않은 신기함과 놀라움을 맛보게 해주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어른 머리통만한 거대 멜론과 죽히 한 아름은 될 만한 매머드 포도송이 - 따가운 중앙아시아의 햇살 때문인가? 깨물기만 해도 입안에 넘쳐나는 단물... 혀와 코끝을 녹여준 우즈벡 와인과 우즈벡산 보드카의 향기... 타슈켄트의 명소이자 유명한 관광지인 케치쿠룩(Kechquruk) 강(江)가 '샤르샤라(Sharshara) 폭포레스토랑'과 양고기 · 말고기 구이의 특유한 감칠맛... 길거리 카페에서 사 마신 석류 주스 한 잔의 추억... 아니 다른 모든 것 제쳐두고, 가도가도 끝없이 거칠고 메마른 풍경만 계속되던 산복도로(Mountain pass) 변의 파노라마 등... 늘어놓자면 끝이 없다.

마지막으로, 이번 우즈벡 여행이 가능하게 해주신 ICKC 박의근 단장님, 옛새를 한순간처럼 신나고 멋진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 이헌목·허원준 선배님과 고용규·박영수·정덕균 아우님(※실례!)의 성함을 꼭 남겨두고 싶다.



세계태권도연맹-한문화재단 키르기스스탄 케어스 프로그램 개막식 성료... ICKC 태권도발전기금 후원



강석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에 꿈과 희망을!’

2025 키르기스스탄 세계태권도연맹(WT)-한문화재단(KCF) 케어스 프로그램 개막식이 지난 9월 20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비슈케크 시내 알가스포츠종합체육관(Alga Sports Complex)에서 제2회 노마드 밝은사회클럽(GCS) 국제오픈태권도선수권대회와 함께 열린 이번 WT-KCF 케어스 프로그램 개막식에는 우리 ICKC 총재이시기도 한 조정원 WT 및 GCS국제본부(GCS International) 총재와 케어스 프로그램 참가 고아원생 100명을 포함한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贵宾으로 움베타리 토크토리예비치 키디라리에프(Umbetaly Toktoralievitch Kydyraliev) 키르기

스스탄 국가올림픽 위원장과 김광재 주 키르기스스탄 한국 대사, 마가블레 마헤르(Magableh Maher) GCS 호주 총재 겸 WT 집행위원, 남데프 쉬르가온카(Namdev Shirgaonker) GCS 인도 총재 겸 인도 태권도협회장, 사다드 알 암리(Saddad Al Amri) 사우디아라비아 WT 집행위원, 하젬 나이마트(Hazem Naimat) 요르단태권도협회 부회장, 쿠드랏 샤미예프(Kudrat Shamiyev) 카자흐스탄태권도협회장, 그리고 알렉세이 박(Alexey Park) 키르기스스탄태권도협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에서는 26명의 GCS대표단이 비슈케크 행사에 참석했다. 이형택 GCS클럽 국제본부 이사, 서주환 GCS한국 총재, 이원종, GCS한국 사무총장, 강석재 GCS클럽 국제본부 부총재, 홍덕화 GCS클럽 국제본부 신입 사무총장, 원소영 GCS클럽 국제본부 국장, 그리고 박의근 (사)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ICKC) 고문을 비롯한 5명의 ICKC 회원 등이 주된 참석 인사였다.

오후 4시부터 시작한 개막식에서 케어스 프로그램 참가 고아원생들의 태권도 시범, 키르기스스탄 전통 북 공연 그리고 특공대원들의 무술 시범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개막식 인사말에서 조정원 총재는 2025 WT-한문화재단 케어스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김준


일 KCF 이사장 그리고 태권도발전기금을 후원한 ICKC 측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더 많은 국가로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개막식에 앞서 GCS한국 회원들과 태권도 관계자 약 50여 명은 비슈케크 시내에 위치한 아이다넥 고아원(Aidanek Center)을 방문하여 GCS 한국본부가 준비한 전자 오르간 1대와 텔레비전 2대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 자리에서 한문화재단이 기증한 텀블러를 엘미라 주마에바(Elmira Jumaeva) 아이다넥 고아원장에게 전달했다.

아시아발전재단(ADF)은 지난 2019년 WT와 업무협약을 맺어 고아와 재소자 등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케어스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또한 ADF 후원으로 WT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째 키르기스스탄 고아원생을 대상으로 현지 태권도 사범을 파견하여 무료 태권도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2025년부터 한문화재단이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시내 고아원 2곳(Aidanek Center, SOS Children's Village) 100여 명 고아원생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지난 8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ICKC도 매년 해당 사업에 태권도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WT는 자체 예산으로 2025년부터 네팔, 스리랑카, 몽골,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와 부룬디 총 6개 국가에서 그리고 한문화재단 예산으로 키르기스스탄과 부탄 2개 국가에서 WT케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키르기스스탄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 개막식에서 현지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 촬영 중인 ICKC 사절단.



▶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 개막식과 함께 열린 제2회 노마드 밝은사회클럽(GCS) 국제오픈태권도선수권대회.

희망의 대륙, 아프리카에서 피어난 새로운 K-Wave



박 소 영

K-Vibe Ltd. 카운슬러

“잡보, 하쿠나 마타타”

동아프리카에서 사용하는 스와힐리어로 각각 ‘안녕, 반가워’, 그리고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잘 될 거예요’라는 의미를 가진 희망의 인사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를 여전히 코끼리 타고 슈퍼마켓 가는 곳(?) 또는 빈민가가 가득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단일 국가가 아닌 54개국이 이루어진 광활한 대륙입니다. 그 크기는 중국, 미

국, 인도, 유럽을 합친 것과 비슷한 정도로 거대합니다. 대부분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아직 부족하지만, 저는 이 신비하고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땅에서 케냐 나이로비에서 10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K-Wave와 그 안에서 꽃피우고 있는 한국어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케냐에서 4년, 나이지리아에서 1년간 한글학교 교사를 거쳐 현재는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현지인 팬 카페 중심의 비영리단체 K-Vibe Ltd.(2022년부터 K-Festival행사 개최)에서 카운셀러역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나이지리아에서는 동양인을 향한 인사는 대부분 “니하우”였으나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한국어 교육 현장. ▶

중국인이 아니라고 하면, 혹시 한국인이냐고 물어 보고 바로 “안녕하세요”로 인사하는 현지인들을 흔하게 만납니다. ‘K-Culture’의 열풍은 아프리카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젊은 인구가 많고 문화 수용성이 높은 나이지리아에서는 그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K-드라마를 통해 독학으로 한국어를 7-8년 공부해서 수준급으로 한국어를 하는 친구, 앱이나 유튜브를 찾아서 공부한 친구 등 한국어에 대한 열망이 넘치는 이들을 현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열정적인 친구들을 보며 교사로서 제

가 가진 장점을 살려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수도인 아부자에는 한국 문화원과 세종학당이 있지만, 라고스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온라인으로 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는 친구들의 하소연 아닌 하소연은 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정한 친구이자 배움의 길라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1~2주에 1회 온라인으로 만나 한국어로 대화하고, 어려운 속담이나 표현,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들 및 한국의 문화와 나이지리아 문화를 비교도 하면서 이야기하고 소통합니다.



▲ 나이지리아 한국어 교육 현장.

한국의 존댓말 문화는 나이지리아 요루바(Yoruba) 종족의 존칭 문화와 매우 유사하며, 나이 든 분들을 극진히 존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또한, 음식도 한국처럼 매운 음식이 많은 것, 그런 음식을 좋아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점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나이지리아 현지어에도 ‘빠다빠다’라는 단어가 있듯 그들의 민족성 역시 ‘빨리빨리’를 선호하는 급한 성미가 비슷합니다.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된 ‘빨리빨리’와 정 많은 나이지리아인들은 정말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끊기는 일은 흔합니다. 어떤 친구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얼굴 한쪽만 나오는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수업하면서도 끝까지 수업을 마치고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빛나는 눈빛은 저에게는 가장 훌륭한 교구이자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경험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현장은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 한국의 ‘정(情)’을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 전기가 나가거나, 인터넷 연결



저는 희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검은 대륙의 여러 나라에서 저와 같이 현지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한국어와 문화를 융합하여 가르치는 소중한 노력을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요. 그 노력들이 모여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더 큰 한국의 희망이 뿌리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프리카의 열정 속에서 한글이라는 단어는 오늘도 희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이지리아 한국어 교육 현장.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올해 50만명 돌파... 내년 총 15회 실시

최근 한국어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가 늘어나면서 내년 인터넷 기반 시험(IBT) 국내 시험장과 시행 국가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10월 9일 발표한 2026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 총 15회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II)는 지필시험(PBT) 6회, 인터넷 기반 시험 6회로 총 12회 시행된다. 말하기 평가는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3회 실시된다. 인터넷 기반 시험 시행 국가는 올해 한국,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에서 내년에는 네팔, 라오스, 바레인, 인도가 추가돼 총 17개국으로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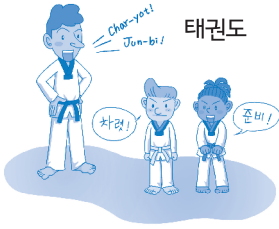
1997년 시작돼 올해 5월 100회를 맞은 이 시험은 재외동포,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시험이다.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거워짐에 따라 응시자도 지속해 늘어나고 있다. 2022년 36만 명에서 2023년 42만 명, 2024년 49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50만 명을 처음 돌파해 9월까지 약 55만 명이 지원했다.

[기사 출처]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2025/10/09

<https://www.yna.co.kr/view/AKR20251002141000530?section=search>



▲ 한국어 수업 듣는 프랑스 고등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권도의 매력을 세계에”... 한국서 나고 자란 콩고 청년의 소망

2025년 10월 24일, 중국 장쑤성 우시 타이후 인터내셔널 엑스포 센터에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식이 성대하게 펼쳐졌다. 마지막 순서인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의 공연은 절도 있는 동작과 고난도 격파, 웅장한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져 관객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WT 시범단은 2021년 미국 NBC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 결승에 진출하며 전 세계에 태권도의 아름다움을 알린 바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청년 브라이언 칼라무(경희대 태권도학과 2학년)가 눈길을 끌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중학교 시절 시장을 지나던 중 들은 태권도장의 기합 소리에 매료되어 태권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시흥시 시범단 활동을 거쳐 올해 WT 시범단에 합류한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생애 첫 해외 무대를 밟았다.

칼라무는 “태권도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며 귀화 의사를 밝히고, 태권도를 통해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그의 동생 제이든도 형을 따라 태권도 시범단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한국어와 프랑스어, 영어에 모두 능통한 그는 오는 11월 아프리카 적도기니 공연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태권도 지도자이자 행정가로 성장해 후배들을 이끌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기사 출처]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2025/10/26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6042200007?section=search>



▲ 시범 공연하는 브라이언 칼라무 (가운데, 세계태권도연맹 제공).

■ ICKC, 주한 우즈벡 대사관에 우즈벡 대표 소설 <아팠던 시간들> 한국어판 기증

지난 6월 18일(수), ICKC는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우즈베키스탄 근대문학의 대표작인 <아팠던 시간들> 한국어판 출간을 기념하여 해당 도서 150권(3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기증하였다. <아팠던 시간들>은 20세기 우즈베키스탄 근대문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압둘라 코디리가 1926년에 발표한 소설로, 우즈베키스탄 근대사를 비롯해 민족의 정체성과 전통, 억압 속 인간의 운명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우즈베키스탄 문학의 대표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소설은 이미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터키어, 아랍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돼 세계적으로 널리 읽혀왔으며, 올해는 키르기스어 번역까지 출간됐다.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은 6월 30일(월), 서울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아팠던 시간들>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주최하였으며, ICKC 이호정 이사장이 초청 받아 참석하였다. 본 행사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Alisher Abdusalomov)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는 도서를 기증하고 본 행사를 후원한 ICKC에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



◀ <아팠던 시간들> 출판기념회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왼쪽에서 네 번째)와 기념촬영 중인 ICKC 이호정 이사장(왼쪽에서 세 번째).

■ 8월 문화탐방... 시, 조각, 빛, 그리고 찬미전 관람

지난 8월 28일(목), 서울 효창동 김세중미술관에서 개막한 '시, 조각, 빛, 그리고 찬미'전을 관람하였다. 본 전시는故 김남조(1927-2023) 시인의 시, 김세중(1928-1986) 전 서울대 미대 교수의 조각, 그리고 조광호 신부의 스테인드글라스가 어우러진 특별전으로, 부부였던 김남조 시인의 시와 김세중 교수의 조각을 최초로 함께 선보인다는 의미가 있었다. 이번 특별전은 또한 ICKC 회원인 조광호 신부가 참여했다는 데서도 그 의의를 더했다. 강화 동검도채플 주임인

조 신부는 스테인드글라스 아트 of 거장으로 인정받는 작가로, 인천가톨릭대 조형예술대 학장을 지냈고, 인천 연수구에서 가톨릭조형예술연구소 Space & Glass Art를 꾸리고 있다. 이번 전시를 관람하며 삶과 존재의 의미 그리고 종교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ICKC 회원들은 입을 모았다.



▲ 김세중 교수의 작품 <피에타> 앞에서 기념 촬영.

■ 우즈베키스탄 정부 초청으로 ICKC 사절단 우즈벡 방문…

BFC 개소식 참석 및 故 비탈리 펜 대사 추모

키스탄 타슈켄트, 페르가나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초청으로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ICKC 사절단은 첫 번째 주요 일정으로 타슈켄트 현지 ‘보미파이낸스센터(BFC)’ 개소식에 참석하였다. BFC는 국내 중견기업 보미건설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추진한 첫 대규모 해외 개발사업으로, 지하 3층, 지상 30층의 초고층 복합 오피스 빌딩이다. 한국과 우즈벡 양국의 미래 협력과 공동 성장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이정표로 평가되는 본 빌딩 개관식에서는 한복 패션쇼, 한국 전통 부채춤, 우즈베키스탄 전통 무용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졌고, 보미건설 창립자인 김덕영 회장이 ICKC 사절단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참석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직접 전했다.

ICKC 사절단은 두 번째 주요 일정으로 페르가나에 자리한 故 비탈리 펜 주한 우즈베키스

(사)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 활동 소식

탄 대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펜 대사의 생가를 찾아 가족 및 일가 친척에게 추모의 뜻을 전했다. '절강 편씨(片氏)' 편갈송의 후예인 故 비탈리 펜(Vitaly Fen) 대사는 77년 생애의 3분의 1인 25년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로 재직하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일조한 외교관으로서 고려인 동포사회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오래 대사로 재직하신 펜 대사는 재직 25년간 12회에 걸쳐 한국-우즈베크 양국정상회담을 주재하였으며, 지난 2024년 6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치른 후 사흘 뒤 고향에서 영면하였다.

비탈리 펜 대사와 형제처럼 지내며 인간적으로 교류하였던 박의근 고문은 ICKC 사절단을 이끌고 비탈리 펜 대사의 묘소를 참배했고 이어 생가를 방문해 고인의 가족 및 일가친척을 만나 생의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한 고인의 투철한 책임감과 헌신을 기리며 추모의 뜻을 전하였다.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정부 초청으로 진행된 5박 6일간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무탈히 마치고 ICKC 사절단 전원 건강하게 귀국했다.



◀ 故 비탈리 펜 대사 묘소를 참배하고 추모한 ICKC 사절단.



◀ '보미파이낸스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ICKC 사절단. (왼쪽 두 번째부터) 심의표 ICKC 이사-전 KBS부산총국장, 이현목 농림식품부 관리관·(사)품목조직화지원단 대표, 박의근 ICKC 고문·(주)P&H 회장, 허원준 전 한화케미칼 부회장·전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 고용규 ICKC 감사·(주)동우울 대표이사, 박명수 행정학박사·전 한국가이던스 전무이사.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GCS국제대회 및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 참가...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2025년 9월 16일(화)부터 21일(일)까지 박의근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ICKC 사절단이 '2025 밝은사회클럽국제본부(GCS International) 국제대회' 및 '2025 세계태권도연맹-한문화재단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 개막식' 참가를 위해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를 방문했다.

ICKC 사절단은 'GCS 국제대회'에서 키르기스스탄 고아원생 및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 교육을 위해 태권도발전기금 5백만 원을 전달하였고, '노마드 밝은사회클럽 국제 오픈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세계태권도연맹(WT)과 한문화재단(KCF)이 주최한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 개막식에도 참석하여 후원 물품 전달, 봉사 활동 등 여러 등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했다.

비슈케크 시내 알가스스포츠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 개막식에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겸 ICKC 총재를 비롯해 케어스 프로그램 참가 고아원생 100여 명, 키르기스스탄 국가올림픽 위원장, 키르기스스탄 태권도협회장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개막식에서 케어스 프로그램 참가 고아원생들의 태권도 시범, 키르기스스탄 전통 북 공연, 특공대원들의 무술 시범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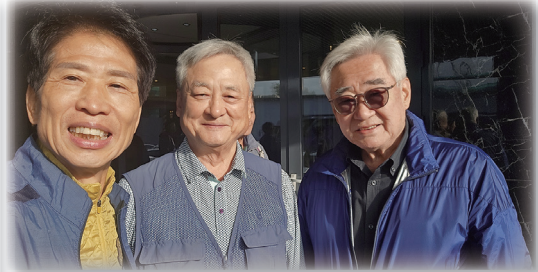
이밖에도 ICKC 사절단은 키르기스스탄의 명소인 이식쿨 호수 등을 탐방하며 키르기스스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및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며, 태권도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과 키르기스스탄 양국의 문화교류에 일조했다. 이렇게 5박 6일간 키르기스스탄 탐방을 무사히 마치고 ICKC 사절단 모두 건강하게 귀국했다.



▲ '2025 GCS 국제대회' 참석자 단체 촬영.



▲ 키르기스스탄 태권도 협회에 'ICKC 태권도발전기금'을 전달하는 박의근 고문.



▲ (왼쪽부터) 키르기스스탄 탐방에 함께 참석한 강석재 ICKC 이사 겸 세계태권도연맹전문위원, 박의근 ICKC 고문,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겸 ICKC 총재.



◀ '2025 GCS 국제대회'에 참석한 ICKC 사절단. 왼쪽부터 이병욱 서원대 명예교수·마리소리음악연구원 이사장,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박의근 ICKC 고문·(주)P&H 회장, 정현관 산림청 '중부육종장'장·국립산림과학원 전문위원, 정덕균 포스코DX 고문·전 대표이사 사장.

※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International)는 ICKC 총재이자 세계태권도연맹의 총재인 조정원 총재의 선친인故 조영식 박사(경희학원 설립자)께서 1979년 설립된 단체로 1981년 UN “세계 평화의 날”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1997년에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해 국제 NGO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 단체입니다. ICKC는 이번에 전달한 태권도발전기금을 포함해, 세계태권도연맹과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를 통해 우즈베키스탄(2017년), 캄보디아(2018년), 네팔(2019년), 스리랑카(2020, 2022년), 폴란드(2023년), 네팔(2024년) 등 세계 각국에 태권도 문화 진흥 및 교육을 위한 태권도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 ICKC의 해외역사문화탐방과 태권도발전기금 후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세계한인여성협회 주최 '제10차 세계한인여성대회' 참가 및 후원

‘K-컬처 세계화를 통한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주제로 한 제10차 세계한인여성대회 및 제4회 대한민국 세계화 봉사 공로대상 시상식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ICKC가 후원단체로 참여한 이번 행사는 세계한인여성협회(UWKK, 총재 이효정) 주최로, 전 세계 한인 여성 리더와 국내 인사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K-컬처를 통한 세계 평화와 여성 리더십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강영실 부총재와 이인선 공동대회장(국회의원)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자”고 당부했다. 주호영 국회의장은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인 여성들의 리더십은 국가의 자부심”이라며 격려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에서 봉사와 헌신을 실천한 인물들에게 ‘대한민국 세계화 봉사 공로대상’이 수여됐다.

이후 참가자들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북 안동시 일원을 방문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2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효정 총재는 “고국의 따뜻한 환대 속에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다”며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 의지를 밝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행사가 안동시와 세계한인여성협회의 교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제10차 '세계한인여성대회'에서 '대한민국 세계화 봉사 공로대상'을 시상하고 있는 이효정 UWKK 총재(ICKC 이사장, 왼쪽에서 두 번째).

■ 10월 문화탐방... 경북궁 돌담길과 청와대

지난 10월 23일(목), 10월 문화탐방으로 “경복궁 돌담길”을 탐방하였다. 경복궁역 5번 출구에서 시작해 광화문, 동십자각, 국립현대미술관, 종친부, 춘생문 터, 신무문, 청와대 앞, 청와대 사랑채, 영추문으로 이어지는 이번 탐방 코스는, 평소에 자주 걷고 접하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경복궁 돌담길에 어린 조선왕실의 문화유산과 이야기를 새롭게 배우고 깨닫게 되는 소중한

(사)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 활동 소식

시간이었다. 서울시 문화해설사의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과 함께 경
북궁의 문화유산적 가치뿐 아니라,
고려 남경의 이궁에서 경북궁의 후
원으로, 조선총독부 관저에서 대통
령의 집무실까지 이어진 청와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청명한 가을 날씨 덕분에 더 즐거
웠던 탐방을 마치고 저녁식사하며
친목을 다진 뒤 해산하였다.



(사)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ICKC)
경북궁 돌담길 문화탐방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2025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5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영실, 고용규, 구병진, 김건길, 김소진, 김시범,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택, 김진원, 김창옥, 김호일,
박경명, 박기연, 박명수, 박미나, 박미화, 박원출, 박익근, 박인숙, 배대환, 송대성, 심의표, 양수영, 양우진, 오일호,
유영찬, 유자호, 이병욱, 이상철, 이석복,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항구, 이현목, 이효정, 이효진, 전영섭, 전찬수,
정경수, 정덕균, 정상설, 정현관, 조춘연, 추호석, 표재순, 허원준,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주)동우들, (주)루이제,
수풍산업(주), (주)신동, (주)P&H

가나다순, 2025년 1월 1일 ~ 2025년 10월 31일까지

총액 : 61,090,000원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10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에 의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전액 손비 인정됩니다.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kr>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최하거나 관계되는 행사, 대회 등을 본 소식지를 통해 홍보하고 싶으신 회원분께서는
다음 연락처로 연락하시거나 포스터 등 관련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휴대전화 : 010-3531-3494 (최영옥 사무국장) 이메일 : hangyobon@gmail.com



제17회 교보생명FP합창단 자선음악회



2025. 11. 3(월) 오후 7:00
교보생명빌딩 23층 대산홀(광화문본사)



2025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애어울림한궁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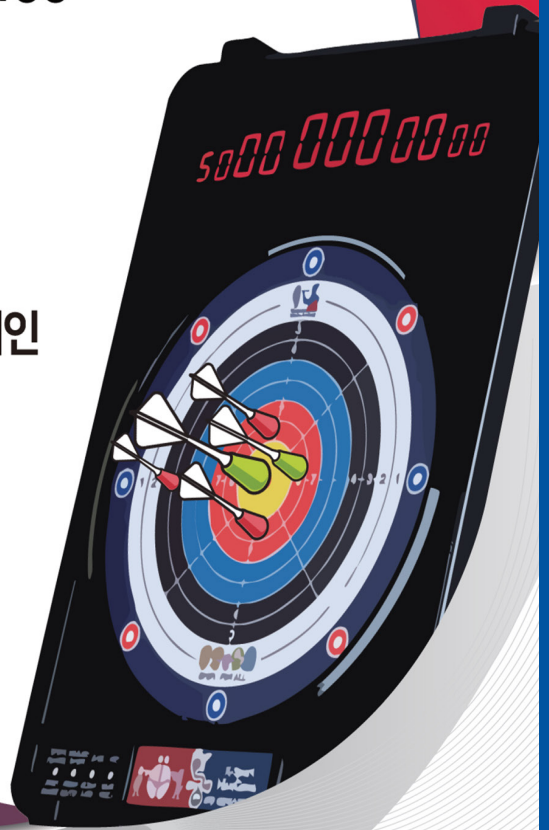
2025. 11. 08. (토) 09:30 ~ 16:00

인덕대학교 본관 은봉홀 등록 09: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 12) 개회식 10:00

참가비 1만원

참가자격 서울특별시민 누구나

대회종목 개인전-장애인 비장애인



주최·주관



서울특별시한궁협회
Seoul Hangung Association

후원



사단대한한궁협회
법인 KOREA HANGUNG ASSOCIATION

idu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Seoul Hangung Federation for the disabled



굿윌스토어
Goodwill Store

(사)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창립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2024.03.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10호)
 2025.06.30. '(사)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로 법인명 변경 (문체부 승인)



| | | | |
|--------------|-------------|---|------------------------------------|
| 조직 구성 | 고문 | 김용구 (주)신동 회장 |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
| | | 박의근 (주)P&H 회장 |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
| | | 전영섭 변호사 | 정순영 前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 | |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 |
| | | 표재순 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 |
| | 총재 |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 |
| | 이사장 |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 |
| | 이사 |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 강영실 교보생명 프라임리더 |
| | | 박영옥 전 한중친선협회 부회장 | 심의표 前 KBS 부산총국장,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
| | 운영위원 | 박경숙 뉴스파플 회장 | 윤문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
| | | 이상미 로미코리아 대표 | 이효진 전 주한호주대사관 호한재단 사무처장 |
| | | 황현모 전시기획자, 화가 | |
| | 감사 | 고용규 (주)동우들 대표이사,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 |
| | | 연기영 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 |

주요 활동 내역

- 2012년 조선족 자치주 설립 60주년 행사 연길 방문
- 2013년 서독 광부 파견 50주년 행사 개최
- 2014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연해주 방문
- 2015년 파독(派獨) 광부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을 기리고 한·독 교류를 증진하고자 독일 뉘스라켄에서 한국음악회 공연
- 2017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 태권도 명예 9단증 수여 · 타슈켄트 대학 태권도학과 신설 약속
- 2018년 저개발 국가의 태권도 · 한국어 교육을 위해 세계태권도연맹 등과 업무협약 체결 및 캄보디아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타이페이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참관
- 2019년 네팔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면암 최익현 선생 묘소 참배
- 2020년 스리랑카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 2021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태권도장 등록 원비 지원 사업
- 2022년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및 '동물사랑 · 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재능교육, 대한태권도협회,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국내 태권도장 수련생 대상 '생명존중 캠페인' 전개, 스리랑카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 2023년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50주년 기념식 참석 및 폴란드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스리랑카 GCS 국제대회 및 GCS & THF Asia 태권도 대회 참석
- 2024년 네팔 GCS 국제대회 참석 및 네팔 태권도협회에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밝은사회운동 결성 50주년 기념 발전기금 전달

이외 재외동포유학생 장학금 수여,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분기별) 및 국내 · 외 문화탐방,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